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6차 세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 구약, 통합, 중재자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구약, 통합, 중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의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통합하고, 그들이 그의 언약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신약 연합의 선구자로 봅니다.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의 일부이며, 그것은 신약에서만 완전히 꽃을 피우지만 그 뿌리는 구약의 토양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의 몸으로 합치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인류의 번식의 자리에서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주님은 내가 너 아브라함과 네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개인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신약 용어를 사용하자면

거듭난 사람들, 즉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모드는 나, 나, 나의, 그런 종류의 것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선, 성경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루는 단체 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지만, 그것은 집단의 맥락에서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 전체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즉시, 나는 동일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모든 사람과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약적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는 주로 전체 법인을 대표하는 특정 개인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나중에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를 개인으로, 역사적 개인으로 긍정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죄가 인류의 정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인류의 정죄와 죄성.

로마서 5장, 그렇습니다. 아담은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왔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ESV는 NIV, NASB 및 모든 영어 번역을 현명하게 따릅니다. 저는 대시가 있는 모든 번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생각을 시작하고 생각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려면, 그가 미완성된 비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올 때 18절과 19절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protasis, if-clause라고 부르는 것을 주지만, apodosis라는 결과절은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죄를 통해 들어왔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듯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칭의와 생명이 왔다. 로마서의 맥락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아담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는 언약의 중보자이지만, 구약에는 여러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구약의 기초를 탐구했듯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구약의 기초, 즉 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중보자의 언약적 구조, 즉 복수가 포함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노아는 분명히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는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되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언어가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홍수 후 창세기 9장에서 반복됩니다. 물론 신약은 그리스도를 궁극적인 언약 중보자로 묘사하는데, 구약 언약 중보자는 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5.

다윗 가문의 메시아이신 예수의 정체성은 그를 구약 언약 중보자의 계보에 있는 언약 중보자로 지명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대표적인 5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일부가 그의 몸에 합쳐진다면, 바울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연합의 일부가 예수의 몸인 교회에 합쳐진다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고 따라서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신약성경 연합은 성육신과 오순절만큼 독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에서 분리하는 기독교인과 교회와 접근 방식은 신약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친구 중 한 명인 아주 유머러스한 사람이 말했어요. 왜, 어떻게 이야기의 3분의 2를 무시할 수 있니? 그는 구약시대 사람이었고, 정말 웃기더군요. 정말 웃기더군요.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게 제 일이 아니에요. 언약 중재자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켜 봅시다.

히브리서 9:15,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가장 놀라운 구절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의 희생이 너무나 기념비적이고 효과적이어서 구약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 주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책을 작업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구절에서 영원한 영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하나님-사람의 사역인 예수의 희생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통해 자신을 바치셨고, 그리하여 그의 희생은 절대적인 희생이 되었고, 구약의 희생들이 가리키던 희생들 중 하나였고, 그들을 삐걱거리게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그가 예루살렘을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과 제단과 모든 거래, 성전으로 정하신 방식으로 더 이상 희생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쓸모없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은, 오, 구원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한 듯했고, 그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속물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 죽임을 당한 동물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아마도 다가올 구속주를 희미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그들은 언약에 의해 그들의 하나님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정한 수단으로 그들의 죄를 다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첫 언약에서 지은 범법에서 구속하는 죽음이 일어났으므로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의 희생을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무엇을 이해했든, 하나님은 용서의 객관적인 근거나 근거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아름답다고? 칼빈은 그것을 복음의 악취 나는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참된 그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현실이 왔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양은 궁극적인 언약의 중재자이며,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속합니다.

저는 신의 주권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구속합니다. 저는 또한 인간의 책임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맙소사. 예수님만이 중재자입니다.

하지만 이 독특한 언약 중재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포함한 구약의 언약 중재자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중재 원칙,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언약 중재자들의 언약적 구조를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인으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합의 미덕으로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구약 배경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의 백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창조의 언약에서 인류를 대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듯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더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행원이자 감독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주님 아래 있는 작은 주인, 소문자 1이었고,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돌보고 돌보고 가꾸었습니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은 온 땅에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엄 있는 주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통치했지만, 타락은 그들의 청지기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으며, 은혜에 대한 큰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에서 배웠듯이 창조물 자체가 타락했고, 그것 역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고, 개별적인 그리스도인과 모든 믿는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제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 화해시킨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속의 그림을 사용하여 같은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은 하나님의 타락한 창조물을 구속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12에서 19:1 고린도전서 15까지 두 군데에서 대조합니다. 사실 두 군데에서 바울은 첫 번째 언약 중보자 아담과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9절 어딘가에서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인데, 왜냐하면 그는 단지 두 번째 언약의 머리로서 올바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인 이브를 폄하하지 않지만, 그녀는 단순히 언약의 머리가 아닙니다. 이브의 죄는 그녀가 모든 노력에 공모했지만, 우리의 영적 은행 계좌에 귀속되지 않지만, 아담의 죄는 귀속됩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뒤에는 언약의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언약의 중재자가 필요 없으며, 사실, 다시 말해서, 그의 구원의 성취는 너무나 거대해서, 기독교 신학은 항상 아담과 이브 자신,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부부를 구원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15에 있는 복음의 첫 번째 약속에 호소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데 내포된 희생의 개념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지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처럼 노아도 홍수에서 살아남은 일곱 명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아 부인도 포함되므로 아홉 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에덴의 명령을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9:1과 7.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창세기 9:1,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9:7,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그것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언어입니다.

노아는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되며,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불이나 물로 지구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복된 세상에 대한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노아의 역할은 우주가 그를 통해 그리고 그를 위해 다시 만들어질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예고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일 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그는 두 번째 노아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 신앙의 기사로 만들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구히 회복시키는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죄인들의 자리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은 개인을 구원하고, 온 교회를 구원했으며, 창조물도 구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아담과 노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12:1~3.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택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책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아버지 테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구원은 모두 그분의 은혜이며 모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에 기여한 것은 우리가 죄에 기여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1, 네 본토와 친족과 네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네 이름을 크게 하여 네가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욕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네 안에서 모든 족속이 저주하리라. 나중에, 22장에서 땅의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땅이 약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이었나요? 약속의 땅이었나요?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앞을 바라보았고,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멀리서 희미하게 기초가 없는 도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기초가 있는 도시를 건축하고 만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긴 안목으로 새 땅을 엿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십니다.

가족, 주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사라가 너무 늙어서 신을 비웃어요.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브라함도 정확히 말해서 남성성과 다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안 될 겁니다. 하느님은 이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략을 꾸밉니다.

오, 조카가 되게 하시고, 사촌이 되게 하시고, 하갈을 통해서 되게 하세요. 고대 근동에서 상속자를 키우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상속자는 사라의 태중에서 당신의 몸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 주님, 아브라함에게 공로를 돌리십시오.

그는 흔들렸지만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로마서 4장은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궁과 죽은 사람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말하면,

자손을 낳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나라를 가져오셨고, 궁극적으로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오셨습니다. 그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온 지구를 축복하는 수단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재자이며,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 실례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의 새로운 언약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은 그 하위 집합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큰 포괄적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30년 후에 나온 율법은 그 언약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장차 올 씨,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의 하위 집합입니다. 유대-유대인의 실수는 구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언약을 주요 거래로 삼았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럼 왜 율법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1세기 사람들에게 익숙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글쎄요, 그 중 하나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익숙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수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교육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완벽한 비유가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학교까지 걸어갔고, 수업을 듣고, 징계를 했고, 바울은 율법이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교사와 같았고, 더 이상 간수와 교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기독교 생활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율법을 제도, 경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는 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정말 훌륭하고 성실한 여성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히브리서를 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이미 2장의 아브라함 장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6장, 끝 가까이에서 정말 명백해요. 아니요,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고 모세 언약의 폐지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죄를 보여주고 어린 시절의 교육적 이미지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역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새 언약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영원한 계시인 십계명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를 축복하여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 중 한 명인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의 첫 말씀, 속죄? 아니요.

부활? 아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의 족보? 오, 아니요, 누군가가 말해요.

저는 열 살 손자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족보, 아빠,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신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맞춰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입니다.

여기 신약의 첫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 왕,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 궁극적인 왕,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고 대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움을 의지했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고, 저는 Richard Longenecker가 쓴 아브라함이 신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기사를 한 번 읽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었을 것이고, 그에게 세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세 권의 책은 그 위대한 인용문의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모두 그것을 인용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약성경에 대한 프로그램적 내용입니다. 그를 의로움으로 여기는 것은 로마인들에게는 들립니다.

잊어버렸어요 .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일찍부터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끝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단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중재자를 통해 우리는 언약의 일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또는 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땅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7:8. 저는 우리가 땅의 약속을 폄하하고, 강조하지 않고, 더 나은 말로 표현한다면, 땅의 약속을 폄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담과 이브는 땅의 청지기였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중 우리가 간과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5장 17:8, 미안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새 땅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10과 11:16.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작은 부분으로, 반복해서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주제를 추적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배운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 그것은 성경을 크고 큰 폭으로 광범위하게 읽고, 아마도 매년 통독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에 대해 아는 것은 전체에 대해 아는 것만큼만 좋고, 여러 해 동안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한 후에, 지난 몇 년 동안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10. 아브라함을 위해, 히브리서 11:9,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았는데, 마치 외국 땅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데아의 우르 출신으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고, 그들은 같은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초가 있는 도시를 고대했고, 그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희미하게 멀리서 보았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6.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구약 성도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음이니라. 사실,

그것은 하늘의, 땅의 도시이다.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따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받은 은혜에 근거하며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다루었다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3:16). 아브라함 언약은 새 언약의 기초이며, 신약의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그 의미는, 가까이 인용하자면, 영생입니다(갈라디아서 3:29) .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약의 언약 중보자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15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24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떨리는 시내산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뿌려진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씀을 전하는 그의 피, 히브리서 12:24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인간보다 더 크신 것처럼, 요한복음 8:58.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구약의 중보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라면, 당신은 아마 모세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당신은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하신 주님의 종 모세는 옛 언약의 중보자이며, 하느님께서 시내산에서 구속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의 이름을 지닌 자입니다.

아브라함 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듯이 ,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확립합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선하신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출애굽기 19장). 주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어(출애굽기 19:3) 이르시되,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로 인도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느니라.

이제,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배로운 소유가 되리니,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이야기를 읽고 그가 엉뚱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이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들을 택하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 더 큰 모세, 더 큰 다윗,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모범이 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모세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중한 소유라고 부르셨고, 5절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의 백성은 재구성된 인류가 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즉,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아담과 노아의 새로운 자손입니다. 구원받은 인류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 :7. 이스라엘은 이 높은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그들의 중재자가 개입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중재자는 모세일 것입니다. 더 위대한 중재자,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이루실 때까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5:17과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로마서 10:10에서 그는 자신을 바칠 때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9시, 미안합니다. 9:3입니다. 저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로마서 9:3, 그리고 제 마음에는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이해력을 주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투쟁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아와서 쉬게 될 것이지만, 그동안, 저는 제 형제들, 제 친척들, 육신에 따라 그리스도와 저주를 받고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로마서 9:3, 4.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재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재해 줄 것을 거듭거듭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를 폭파해 주세요,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폭파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 사람들 ,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게 유혹이었을까? 그렇지 않은 듯. 아니, 신의 이름을 위해, 제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주님. 하지만 그는 결국 그들에게 화가 나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가장 재밌는 교회사 교수인 토마스 테일러를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재밌고 훌륭한 형제였고, 그의 태도와 상당한 가르침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가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나중에 훨씬 더 좋은 동료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산의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웃기더군요.

모세는 더 위대한 중재자 예수가 와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성취할 때까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5:17. 나는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성취합니다. 나는 그것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 종착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로움을 위한 율법의 목표입니다. 모세는 중개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이 제정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중재한 언약은 430년 후에 왔습니다. 중재한 자, 모세가 중재한 언약은 430년 후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재한 언약은 그것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모세는 위대한 구약 언약 중재자였습니다 .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나는 그 장을 잘못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빨리 도와주세요 .

어쨌든, 히브리서 초반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를 상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줍니다.

그 구절들은 제 성경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구약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하지만 있었어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어야겠지만, 아브라함 모세의 새 언약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일하는 모세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3:2~6. 4장과 5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보증인인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세와 맺은 언약을 무효화하여 쓸모없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7:18, 19. 히브리서 7:22. 히브리서 8:6, 8:13.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너무나 위대해서 새 언약의 신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구약의 성도들도 구속합니다. 히브리서 9:15. 다윗.

다윗은 또한 구약의 언약 중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12-16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하 7:12~16. 네 날이 차서 다윗과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우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씨를 네 뒤에 일으켜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분열된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일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가 불의를 행하면, 나는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 변함없는 사랑은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낸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집과 네 왕국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을 것이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것을 하는 것은 네 아들에게 달려 있다. 나는 너에게 집을 짓겠다. 왕조, 다윗의 집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혈통이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언한 말씀이며, 마리아는 아름다운 찬가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궁극적인 다윗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또한 다윗의 주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다윗은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인가? 물론 이다. 그는 그의 후손이고, 예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왜 이 다윗이 시편 110 편에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그가 말한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래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것이다.

다윗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그의 아들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질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만의 게임에서 그를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의미는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 된 주님, 사람입니다.

예수는 더 위대한 다윗이며, 그의 백성에게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표하는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구약의 기초의 일부로서 언약에 편입되는 개념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도와의 신약적 연합을 위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속죄는 우리가 이야기해 온 많은 것들을 성취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구약, 통합, 중재자입니다.